

무등산 자락서 흥겨운 우리가락

광주문화재단 '토요 상설공연'
12일~10월 25일까지 총 24회
판소리·가야금·창작 공연 등
명인들 무대 전통예술 깊은 울림

열쫓! 무등산을 배경으로 광대들이 흥겨운 춤사위를 선보이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선율의 가야금 연주와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매주 토요일 각양각색의 전통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전통 공연 예술과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요 상설공연' 2025년 시즌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오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판소리부터 가야금, 창작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판소리·산조, 국악창작, 연희·무용 등 총 17개 팀과 함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전수자 7명이 참여하는 초청 공연으로 꾸러진다.

특히 토요 상설공연은 매주 공연 장르가 달라져, 관객들에게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색깔을 선사한다. 매월 첫째 주에는 판소리·산조, 둘째 주는 국악창작, 셋째 주는 연희·무용 공연이 이어지고, 넷째와 다섯째 주에는 지역 무형유산 초청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매주 변화하는 공연 구성 속에서 시민들은 전통 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직접 느끼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오는 12일 오후 3시에는 전통 예술을 친근하고 흥겹게 풀어내는 단체 '연우기화'이 무대에 오른다. '광대들의 유쾌한 세상'을 주제로 사물놀이, 버구춤, 죽장놀이, 사자춤 등 신명나는 연희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전통의 한바탕 놀이



올해도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토요 상설공연'이 열려 매주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선사할 예정이다.

판으로 이끈다.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 담긴 유머와 재치,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는 전통 예술이 지닌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19일 무대는 창작연희국악단 '홀릭'이 꾸민다. 타악, 한국무용, 판소리를 엮은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영화왕의 남자 OST로 널리 알려진 '인연'을 국악으로 편곡해 노래하고, 삼도사물놀이 장단에 현대적인 리듬을 접목한 '4인 4색 얇은반 설장구'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감각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무형유산 보유자들도 전통문화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전통예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26일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황승숙 명인이 단가 '녹음방초'와 적벽가 중 '화룡도', 심청가 등의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이날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시양 고수가 함께해 완성도를 더한다.

이 밖에도 문명자(5월 26일), 이순자(5월 31일), 이영애(6월 28일), 방성준(8월 30일), 김

선이(9월 27일), 최연자(10월 25일) 등 국내 대표적인 판소리·가야금병창 명인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전통문화관 숲을대문과 너털마당 일원에서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가 진행된다. 5세기 수산리 고분벽화에 그려진 연희 장면을 현실로 되살려 보고, 민속놀이 체험도 마련돼 있어 전통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다.

한편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토요 상설공연'은 지난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누적 관객 수 18만 명을 넘어서는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노회용 재단 대표이사는 "매주 토요일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전통 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문화적 여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무등산권을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토요상설공연' 무대에 오른 풍물세상 굿매마루가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초등 교실에 신명나는 국악 배달

전통연희 단체 '자타공인' 12일~5월 29일 광주 4개교 62학급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가야금을 만져보고 연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자타공인 제공>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신명나는 국악이 찾아간다. 지역 전통연희 단체 '자타공인'이 '2025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 사업에 선정돼, 아이들에게 흥겨운 국악의 매력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타공인은 광주 진제초, 삼도초, 진남초, 유덕초 등 4개 초등학교의 62학급을 찾아가 전통예술의 맛과 흥을 전한다. 오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는 교과서 속 국악 제재곡을 아이들이 직접 듣고, 부르고, 연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자타공인은 전통연희 특유의 흥겨움과 생

동감을 더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가창과 신체 표현, 전통 악기 체험, 전래놀이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국악의 매력을 몸으로 느끼며 전통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현영 자타공인 대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밝히고자, 전통예술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음악을 통해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오월항쟁 45주기 '걸개시화' 전 연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오늘까지 원고모집...5월 한 달간 전시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는 뜻 깊은 해다.

80년 5월 당시 민주 시민과 학생, 양심 있는 지식인, 예술가들은 신군부의 쿠데타에 반발해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그 가운데 당시 문인들은 '걸개그림'이나 벽화, 짧은 시로 불의와 폭력을 고발했다. 시대를 초월해 문인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오월항쟁 45주기를 맞아 올해도 80년 5월의 진실을 알리고 예술로 항쟁했던 '걸개시화'가 내걸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은 올해 오월문

학제 일환으로 걸개시화 원고를 모집한다.

작가회의는 회원들 글을 걸개시화로 만들어 5월 한 달 5·18국립묘지 일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주제는 '5·18 광주민주항쟁', '인권', '민주', '평화'이며 시 1편(행간 포함 25행 이내), 산문은 200자 내외여야 한다. 기한은 9일까지이며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보낼 때 간단한 약력 2줄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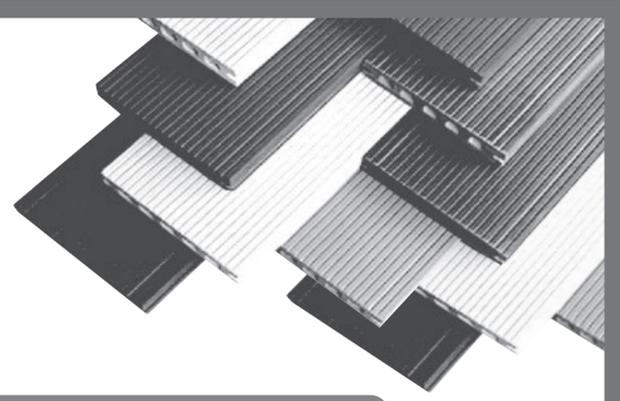
김미승 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광주의 오월은 다가오고 있다"며 "오월문학제 걸개시화로 내걸릴 회원들의 글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광주전남작가회의.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